

한강 노들섬, 대대적 '변신' 나섰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착공…서울시 “자연·예술 공존 세계적 랜드마크 조성”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노들섬이 55년 만에 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적인 전시와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으로 대대적인 변신에 나선다.

이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으로,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다.

그동안 노들섬 서쪽 일부만 개방하였던 것을 지상 전체와 수변, 공중까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인 ‘노들 섬 복합 문화 공간’은 유지하면서 주변에 산책로, 수상 정원 등을 조성해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공간을 완성하고 시민은 물론 세계인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에는 전시 공간과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야경 조감도. (사진=서울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전체 배치도.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전망대를 조성하고, 동쪽 숲은 낙엽 활엽수의 다층 구조의 숲으로 조성해 생물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전체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이 맡아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헤더윅은 런던의 ‘롤링 브릿지’, 뉴욕의 ‘리틀 아일랜드’, 등을 설계했다.

헤더윅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한국의 ‘산’을 형상화한 설계안으로 기둥 위에 공중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공중 보행교와 연결해 한강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체적인 휴식 공간으로 노들섬을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노들섬 한강대교 하부에는 미디어파사드 ‘아뜰리에 노들’을 운영해 한강버스(여의↔잠원)를



▲노들섬을 여가·전시·공연·휴식이 어우러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 (사진=서울시)

타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합문화공간 조화를 극대화한다. 노들섬이 가진 자연환경과 기존 이를 통해 혁신적 공간을



▲기존건축물 ‘노들 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 산책로, 수상 정원 등을 새롭게 조성. (사진=서울시)

조성하기 위해 ‘하늘예술정원’과 ‘수변문화공간’으로 나눠 새로운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석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 보육현장 소통 강화

어린이집총연합회 대의원·임원 연수 참석…“시대흐름 발맞춰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에서 열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 대의원·임원 연수에 참석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김병수 시장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호텔 마리나베이서울에서 열린 ‘2025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 대의원·임원 연수’에 참석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매년 전국 대의원과 임원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보육 현장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연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는 김포시를 방문했다.

민선8기 김포시의 보·교육 기조는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적 접근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향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교육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인구규모보다 구성원의 변화 적응력이 더 중요할 것이고, 김포시는 이러한 관점에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성장 주기를 따라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김포는 교육발전특구 및 자율형공립고 선정, 연세대와의 협력, 영유아 보육 및 초등 긴급돌봄체계 구축 등 보육과 교육의 큰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김포시는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역 내



▲김병수 시장, 어린이집총연합회 연수 축사 모습. (사진=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22개소, 애간연장 어린이집 118개소, 시간제 보육 14개소 15개반, 영유아 긴급돌봄 어린이집 및 초등 긴급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조재호 기자